

국립현대미술관 '젊은 모색 2013' 전 젊은 작가들의 통통 튀는 상상력



'Fortune Plating : 삼죽섬, 백정기, 2013, 삼죽섬(황동 두꺼비)·유리 수조·발발굽 쇠·혼합 매체, 가변 크기, 작가 소장.

전시 6월 23일까지
관람료 3천 원
문의 02-2188-6000

하얀 벽의 테두리가 하늘색으로 칠해져 마치 사진을 끼우지 않은 액자처럼 보인다. 다가서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색 종이 여러 장을 벽 가장자리에 덕지덕지 붙였다. 벽 앞에는 하늘색 가루가 뿌려져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벽에 붙은 종이도 그냥 종이도 아니라 표면을 사포로 긁어낸 천 원짜리 지폐이며 벽 앞에 뿌려진 하늘색 가루는 지폐를 긁어내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작가 박제성은 '의식·환원과 분리'에서 화폐에 인쇄된 이미지를 사포로 지우는 과정을 통해 돈을 다시 종이로 환원시킴으로써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의 가치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백정기 작가는 특수 물질이 들어 있는 수조 안에 일상적인 물체들과 도금된

황동 두꺼비를 함께 넣어두고 전기의 +, - 성질을 이용해 두꺼비를 싼 금박이 물체들로 옮겨가게 한 작품을 선보인다. '포춘 플레이팅(Fortune Plating)'이라는 이 작품에서 작가는 도금된 두꺼비처럼 상징성을 지닌 물체가 일상적인 사물에 금박을 입힘으로써 상징성이 이동하는 과정을 시각화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 제1전시실에서 열고 있는 '젊은 모색 2013' 전에서는 이렇게 젊은 작가들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회화, 사진, 설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구민자, 김민애, 김태동, 박재영, 박제성, 백정기, 심래정, 유현경, 하대준 등 젊은 작가 9명이 참여했다.

'젊은 모색'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81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열어온 전시로 올해부터 작가의 연령보다 작품 제작 태도와 내용에 초점을 두고 매년 개최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미술가의 '양심 선언', 김홍석 개인전

전시 5월 26일까지
관람료 3천 원
문의 1577-7595

서울 태평로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열고 있는 김홍석의 개인전 '좋은 노동 나쁜 미술'은 유명 미술가들에게 명성을 안겨주는 미술품의 뒤에 숨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다.

설치, 퍼포먼스, 조각, 영상 등을 통해 개념적인 작업을 선보여 온 김홍석 상명대 공연영상미술학과 전공 교수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노력의 집약체인 미술품을 미술가 개인의 소유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는다.

작가는 "미술 작품 한 점이 나오기까지 협력자들이 많이 필요한 데도 정작 완성된 미술품은 미술가 개인에게만 부와 명성을 가져다준다"며 "미술가들이 작품에 들어간 많은 사람의 노력에 대해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한눈에 보는 1970년대 이후 일본 현대미술

전시 4월 14일까지
관람료 3천 원
문의 02-880-9504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본 현대미술 40년을 조망하는 '리:퀘스트(Re:Quest)-1970년대 이후의 일본 현대미술'전이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열고 있다.

전후(戰後) 일본 미술사에 주목해 지금까지 한국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1970년대 이후의 일본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구사마 야요이, 무라카미 다카시, 나라 요시토모 등 국내에 잘 알려진 작가뿐만 아니라 에노쿠라 고지, 노무라 히토시, 하라구치 노리유키, 야나기 유키노리, 이토 류스케, 스다 요시히로, 다나카 쓰키, 가네우지 멧페이, 지바 마사야 등 다소 생소한 작가들까지 모두 53명의 대표작 112점을 소개한다.

전시는 일본 현대미술을 돌아보고 역사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동시대 한국 미술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미술의 상호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번 전시의 큐레이터인 마쓰모토 도루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부관장은



작가 김홍석, 삼성미술관 플라토 제공.

그는 "유명 미술인들이 얻는 부와 명성에 비하면 이름 없는 조력자들의 노동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미술학도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전시에서는 재기 발랄하고 유쾌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담은 조각, 회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29점을 선보인다.



'Banzai Corner', 야나기 유키노리, 1991, 플라스틱 인형·거울, 90x240x240cm, 야나기 스튜디오 소장.

"40여 년간 일본의 현대미술을 돌아보는 회고전은 일본에서도 1994년 이후 열린 적이 없는 만큼 이번 전시는 우리에게도 귀중한 기회"라고 설명한다.



스승과 건달 성악 천재의 유쾌한 드라마 '파파로티'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웃음과 눈물이 버무려진 유쾌한 드라마로 풀어낸 영화다. 특히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사랑스럽고, 각각의 배역을 연기한 배우들의 앙상블이 아름답다.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주역을 따낼 정도로 촉망받는 성악가였다가 병에 걸려 낙향한 '상진'(한석규)은 예술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 상진에게 교장(오달수)은 새로 전학 온 '장호'(이제훈)를 맡아 콩쿠르에 나가라고 지시한다.

상진과 장호의 만남은 처음부터 삐걱거린다. 폭력 조직에 몸담은 장호는 학교에 올 때도 부하들을 끌고 다니며 위화감을 조성한다. 상진은 강패를 제자로 키울 수는 없다며 장호의 노래를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교장의 강압으로 장호의 노래를 처음 들은 상진은 천부적인 재능에 깜짝 놀란다. 게다가 악보도 못 보는 장호가 학교에 남아 밤새도록 연습하는 것을 보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연다.

두 사람은 콩쿠르 준비를 본격 시작하고 장호의 실력은 점점 높아간다.

하지만 폭력 조직은 장호를 쉽게 놔주지 않는다.

이 영화는 사회 주변부에 있는 인물의 인생 역전 성공담이라는 아주 익숙한 플롯을 가져왔다. 그만큼 이야기 전개와 인물 구도가 전형적이고, 양념으로 곁들여진 에피소드도 새로운 것 없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익숙한 에피소드에 나름의 '옛지'를 넣어 조금씩 변주하고 고유의 맛을 살려냈다.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다 싶으면 뒤이어 참신한 대사나 상황이 튀어나와 기어이 웃음을 자아낸다. 편안한 재미와 식사함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매번 가벼운 '잼'을 날리며 재미있는 쪽으로 넘어간다.

영화의 재미를 살린 것은 탁월한 캐릭터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 조화 덕분이다. 특히 두 주연배우 한석규와 이제훈의 차진 궁합이 웃음과 감동을 모두 잡아낸다.



New Films

▼ 장고 : 분노의 추적자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출연 제이미 폭스, 크리스토프 왈츠, 리아나도 디캐프리오 개봉일 3월 21일, 청소년 관람 불가

1850년대 말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참혹했던 노예제의 실상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냉철하고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흑인 노예 장고(제이미 폭스)는 무법자들에게 걸린 현상금으로 먹고사는 닥터 킹(크리스토프 왈츠)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된 뒤 그와 함께 백인 무법자 '사냥'에 나선다. 환상의 복식조가 되면서 정이 든 그들은 필러간 장고의 아내를 찾으러 미시시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농장주 캔디(리아나도 디캐프리오), 그에게 무조건 충성을 바치는 흑인 집사 스티븐(사무엘 잭슨) 일파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투를 벌인다.

남자 배우 4명의 불꽃 튀는 연기가 볼만하다.



▼ 연애의 온도

감독 노덕 출연 김민희, 이민기 개봉일 3월 21일, 청소년 관람 불가



사내 커플인 동희(이민기)와 영(김민희)은 한바탕 크게 싸운 뒤 이별한다.

커플 요금제를 해지하기 직전 인터넷 쇼핑으로 상대에게 요금 폭탄을 안기고, 박살낸 물건을 착불 택배로 돌려준다. 이유도 모른 채 헤어진 둘은 걸으면 해방의 환호성을 지르지만 저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건 감당하기 벅찬 고통스런 신음이다. 상대방의 새 애인을 추적하고 SNS까지 뒤지는 사이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미움마저 사랑이었음을 깨닫는다.

영화는 사랑의 환상을 깨부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사실감 있는 영상과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 그리고 심리 묘사가 돋보인다. 멜로물에 다큐 형식을 도입해 등장인물들이 속내를 털어놓는 인터뷰를 군데군데 배치했다.

▼ 지슬 : 끝나지 않은 세월 2

감독 오열 출연 이경준, 홍상표, 문석범, 양정원 개봉일 3월 21일, 15세 이상 관람가

제주 4·3 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로, 당시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을 피해 산속 동굴로 대피한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다.

주민들이 하루 이틀이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갖고 나온 건 지슬이 전부. '지슬'은 제주 방언으로 '감자'다. 주민들은 동굴에서 감자를 먹으며 집에 두고 온 돼지 먹이 걱정을 하고, 시집 장가 얘기 같은 평범한 일상을 두런두런 얘기한다. 마을을 불사르고 학살을 자행하던 토벌대가 동굴까지 공격해 오지만 주민들이 가진 무기라곤 매운 고추를 태워 낸 거뿐이다.

영화는 선량한 주민들을 향한 토벌대의 만행을 날날이 폭로한다. 희생자들의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감독의 생각을 보여주는 듯한 흑백 화면은 영상미가 뛰어나다.



▼ 호프 스프링즈

감독 데이비드 프랭클 출연 메릴 스트리프, 토미 리 존스 개봉일 4월 4일, 청소년 관람 불가



케이(메릴 스트리프)와 아놀드(토미 리 존스)는 결혼 30년차를 맞은 부부다.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떠나고 두 사람만 남은 집에는 온기가 돌지 않는다. 각방을 쓴 지 너무 오래됐고 식사 시간에 나누는 대화도 몇 마디 되지 않는다.

무미건조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케이는 우연히 알게 된 부부 상담 클리닉을 찾는다. 1주일간의 집중 상담이 이뤄지는 곳은 해안가의 소도시 '호프 스프링즈'. 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놀드는 허름한 모텔과 식당에 불평을 쏟아내고 담당 의사를 사기꾼이라고 욕한다.

영화는 삶과 사랑에 관한 진지한 태도로 부부 각자의 복잡다단한 심리를 세밀하게 보여주면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



'인류의 돈줄' 로스차일드 가

18세기 이후 인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워털루 전쟁,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 주요 전쟁에 막후 주역으로 깊게 관여했고 수에즈 운하 건설, 각국 중앙은행 설립 등 근대 자본주의에서도 핵심 세력으로 활약했다.

이 가문의 역사는 1700년대 후반 독일 프랑크푸르트 빈민가에서 시작한다.

이 책은 1798년부터 1999년까지 이 가문의 200년 역사를 그렸다. 단순히 이들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가문의 기원, 발전 과정, 이면의 움직임까지 훑는다. 서양 근대 자본주의사이자 동시에 '비밀스런' 가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하소설을 방불케 한다.

니얼 퍼거슨 지음, 윤영애·박자니 옮김/21세기북스/1권 660쪽, 2권 852쪽/1권 3만5천 원, 2권 3만8천 원

건강한 식습관으로 암을 예방한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이자 36%가 걸리는 질병이다. 흔히 흡연과 과음,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음식 또한 암의 주요한 발병 인자이다. 최근 육류 위주의 서구식 식습관이 널리 퍼지면서 대장암, 유방암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처럼 음식은 암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예방하고 치료하는 역할도 한다.

암을 이기는 음식은 도정하지 않은 곡물, 채소와 과일이다. 현미, 고구마, 콩, 양배추, 시금치 등 대부분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2007년 발행된 책의 개정판으로 내용이 보다 명확해지고, 새로운 연구 내용이 추가됐다.

박건영 외 지음/연합북스/268쪽/1만2천 원



목적한 올림이 있는 세계의 술 이야기

영어 '스피릿(Spirit)'은 정신과 영혼, 사물의 참뜻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사전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마지막에 '증류주'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13년 동안 각국을 돌아다니며 영감을 만들어 온 저자가 여행지에서 조우한 '스피릿'의 이야기를 모았다.

술은 음식처럼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탈리아에는 포도즙 짜개기를 발효시킨 뒤 증류한 '그라파', 러시아에는 밀로 주조한 '보드카', 멕시코에는 용설란으로 만든 '테킬라'가 있다. 이러한 증류주는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향미를 지니고 있다. 각지의 술을 섭렵한 저자는 "세상은 넓고, 맛있는 술은 많다"는 결론을 내린다.

탁재형 지음/시공사/300쪽/1만3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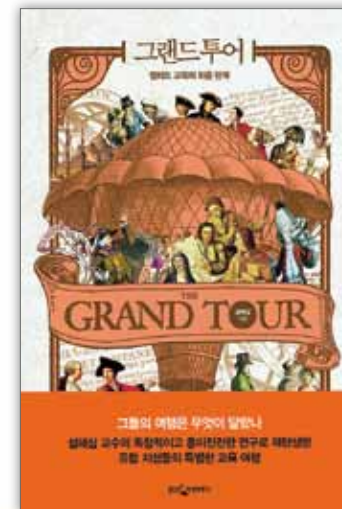
유럽에도 조기 유학이 있었다

서양사 전문가 설혜심 연세대 교수가 목격한 글을 잠시 내려놓고 유럽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쓴 책.

'그랜드 투어'는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유럽 상류층에서 인기를 끌었던 여행 프로그램을 뜻한다. 귀족층은 자녀를 파리, 로마 등 유럽의 주요 도시로 보내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고 외국어와 매너를 배워오게 했다.

상류층 자체가 부모와 주고받은 편지, 동행 교사가 남긴 글 등 개인적인 기록부터 당시의 여행 지침서, 신문 사설 등 공적인 기록까지 찾아내 그랜드 투어가 어떻게 근대 유럽을 변화시켰는지 분석한다. 애덤 스미스, 토머스 홉스, 에드워드 기번, 괴테, 볼테르 등 당대의 지성도 그랜드 투어 출신이라는 점 등 뒷얘기도 흥미롭다.

설혜심 지음/
웅진지식하우스/410쪽/
2만3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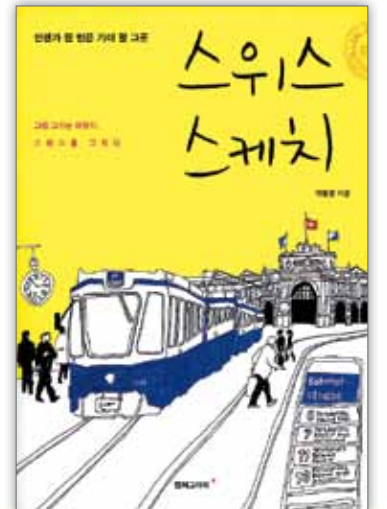


그림으로 담아낸 스위스의 아름다운 정경

여행 방식이 변화하고 정보가 양산되고 있으나, 스위스를 방문한 사람의 행동은 여전히 천편일률이다. 산악열차를 타고 융프라우요흐에 오른 뒤 풍뎉이를 먹는 것이 고작이다. 누구나 동경하는 나라인 데도 정작 스위스에 도착해서는 걸만 밟고 돌아오는 셈이다.

스위스정부관광청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업무를 맡아온 저자가 진짜 스위스를 즐기는 법을 그림과 사진, 글로 정리했다. 한 국가 안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쓰는 지역이 나뉘는 스위스의 역사와 다채로운 풍속을 깊이 있게 소개했다. 헤르만 헤세, 찰리 채플린 등 스위스와 인연이 있는 명사들의 사연도 실려 있다.

박운정 지음/
컬처그라피/324쪽/
1만5천 원



채식, 알고 보면 악한 식단?

'착한 식단'으로 알려진 채식의 문제점을 폭로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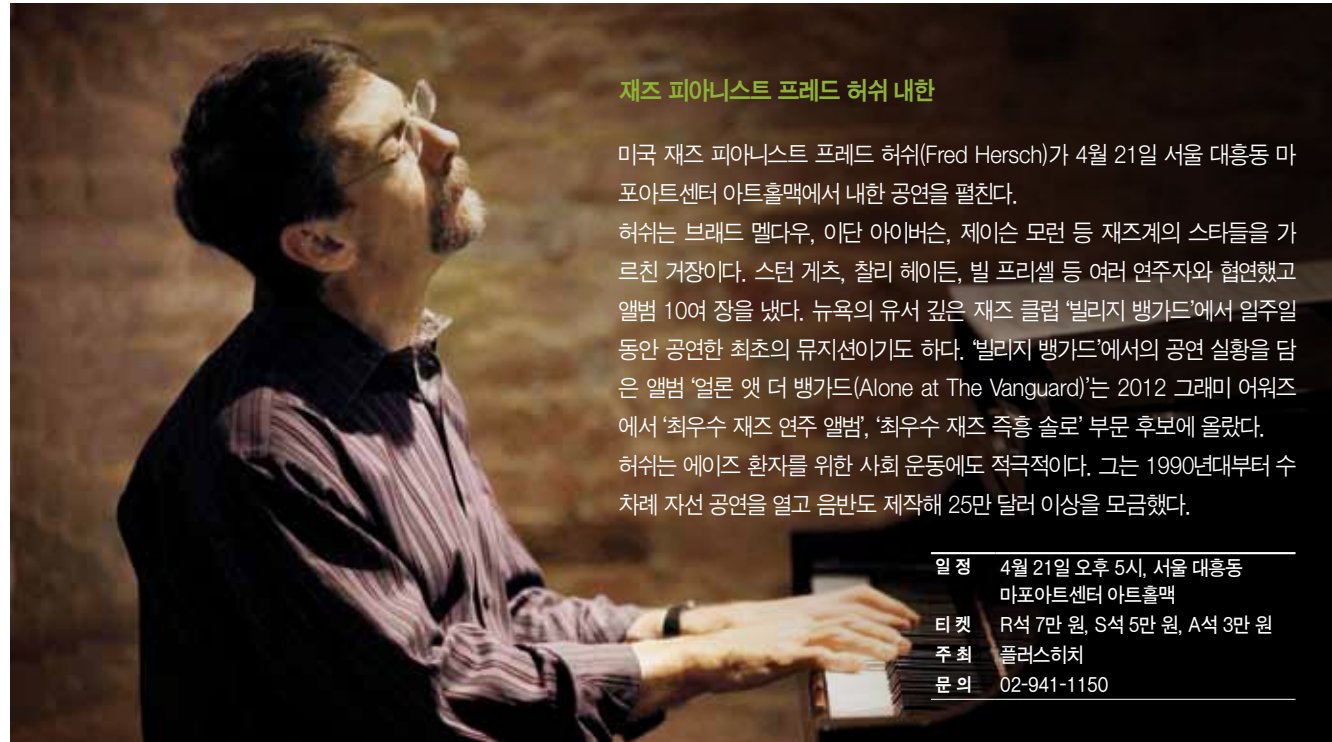
미국의 급진적 환경 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인 리어 키스는 채식이 알고 보면 '악한 식단'이라는 도발적 주장을 펴다.

채식이 '먹고 먹히는' 생태계 순환 고리를 무시한 오만한 이념이며,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위험한 식단이고, 곡물 기업이 배후를 조종하는 '친환경 사기극'이라고 독설을 날린다.

기존 연구 결과를 다양하게 인용해 도덕적, 정치적, 영양학적 측면에서 채식주의에 도사린 함정을 낱알이 파헤친다.

리어 키스 지음, 김희정 옮김/부키/439쪽/1만5천 원





재즈 피아니스트 프레드 허쉬 내한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 프레드 허쉬(Fred Hersch)가 4월 21일 서울 대흥동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내한 공연을 펼친다.

허쉬는 브래드 멜다우, 이단 아이버슨, 제이슨 모런 등 재즈계의 스타들을 가르친 거장이다. 스티븐 게츠, 찰리 헤이든, 빌 프리셀 등 여러 연주자와 협연했고 앨범 10여 장을 냈다. 뉴욕의 유서 깊은 재즈 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일주일 동안 공연한 최초의 뮤지션이기도 하다. '빌리지 뱅가드'에서의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 '얼론 앳 더 뱅가드(Alone at The Vanguard)'는 2012 그레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재즈 연주 앨범', '최우수 재즈 즉흥 솔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허쉬는 에이즈 환자를 위한 사회 운동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1990년대부터 수차례 자선 공연을 열고 음반도 제작해 25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일정	4월 21일 오후 5시, 서울 대흥동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티켓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주최	플러시치
문의	02-941-1150

'월드 스타' 싸이 콘서트 '해프닝'

'강남 스타일'로 월드 스타가 된 가수 싸이(박재상)가 4월 13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해프닝(Happening)'이란 제목의 공연을 펼친다.

'해프닝'은 싸이가 지난해 7월 15일 '강남 스타일'을 발표하고 8월 11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연 '썸머스탠드 힐싯 더(THE) 흠뻑쇼' 이후 처음 여는 유료 공연이다.

지난해 10월 4일 서울시와 손잡고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공연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의 선전을 기념한 이벤트 성격이었다.

싸이는 이날 신곡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강남 스타일' 등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일정	4월 1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월드컵경기장
티켓	지정석-SR석 11만 원, R석 9만9천 원, S석 8만8천 원, A석 7만7천 원, B석 5만5천 원/스탠딩-SR석 11만 원, R석 9만9천 원
주최	YG엔터테인먼트, 서울기획
문의	1544-1555



독일 스타 DJ 제드 내한 공연

독일 출신 DJ 제드(Zedd)가 4월 6일 서울 광장동 워커히호텔 안 워커히씨어터에서 공연을 한다.

제드는 지난해 앨범 '클래리티(Clarity)'로 데뷔한 차세대 스타다. '클래리티'는 아이튠스가 '2012 댄스 부문 최고의 신인 앨범(Breakthrough Album of the Year-Dance)'으로 선정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수록곡 '스펙트럼(Spectrum)'은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가 선정한 '2012 최고의 댄스/클럽 음악(Dance/Club Play Song)' 순위에서 1위에 올랐고, 일렉트로닉 음악 차트 '비트포트(Beatport)'에서는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제드는 국내 팬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SM엔터테인먼트의 프로젝트 그룹 '에스엠 더 퍼포먼스'는 제드의 '스펙트럼'을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일정	4월 6일 오후 10시, 서울 광장동 워커히호텔 워커히씨어터
티켓	6만6천 원
주최	VU엔터테인먼트
문의	02-323-2838



'아들린느를 위한 발라드'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무대

프랑스 출신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리처드 클레이더만(Richard Clayderman)이 4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1976년 '아들린느를 위한 발라드(Ballade pour Adeline)'로 화려하게 데뷔한 클레이더만은 지금까지 800곡 이상을 발표해 전 세계에서 7천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글로벌 스타다.

그는 지난 2월 11년 만의 새 앨범 '로만틱(Romantique)'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클레이더만은 이번 공연에서 대표곡 '아들린느를 위한 발라드'를 비롯해 '쇼 타임(Show Time)' 등 히트곡, 새 앨범 '로만틱' 수록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일정	4월 12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VIP석 15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B석 5만 원
주최	브라보컴
문의	02-3463-2466



'전자음악 선구자' 크라프트베르크 첫 내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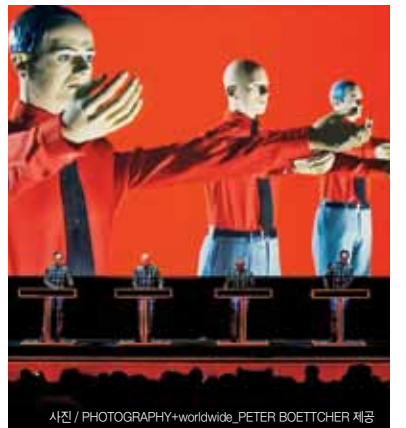
'전자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 일렉트로닉 그룹 크라프트베르크(Kraftwerk)가 4월 27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Culture Project)'의 11번째 주인공이다.

1970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결성한 크라프트베르크는 '발전소'라는 뜻의 팀 이름처럼 혁신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대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다.

결성 초기에는 랄프 후터, 플로리안 슈나이더 등 2인조였으나 지금은 휘터와 프리츠 힐페르트, 헤닝 슈미츠, 포크 그리펜하겐 등 4인조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미국·영국 공연과 마찬가지로 3D 콘서트로 꾸며진다. 크라프트베르크는 잠실종합운동장 서문주차장에 전용 돔 스테이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관객에게는 3D 안경을 나눠준다.

일정	4월 27일 오후 9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서문주차장 돔 스테이지
티켓	11만 원(전석 스탠딩)
주최	현대카드
문의	02-332-3277



들국화 '다시, 행진' 콘서트

록밴드 들국화가 4월 4~14일 서울 서교동 인터파크 아트센터 아트홀에서 '다시, 행진'이란 이름으로 공연을 펼친다.

보컬 전인권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행진하는 우리의 모습이 청춘들에게 울림을 줬으면 한다. 2012년이 들국화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해였다면, 2013년은 '다시, 행진'하는 들국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스스트 최성원은 "이번 공연은 이 땅의 모든 들국화를 위한 뜨거운 응원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보탰다.

들국화는 이번 공연에서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등 히트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속사는 "홍대에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며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정	4월 4~14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6시(4월 8일 공연 없음), 서울 서교동 인터파크 아트센터 아트홀
티켓	R석 8만8천 원, S석 7만7천 원
주최	들국화 컴퍼니
문의	02-334-7191

뮤지컬 '레미제라블' 서울 입성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인 '레미제라블'이 서울 관객을 찾아온다. 지난해 11월 용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을 거쳐 이어지는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이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공연이지만 원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를 비롯해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 전원이 내한, 배우 오디션과 제작 과정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각색해 1980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졌다. 세계적인 뮤지컬 제작자인 카메론 매킨토시가 작품 전체를 개작해 1985년 런던에서 공

연한 것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28년째 공연이라는 뮤지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레미제라블은 지난해 영화로도 제작돼 관객 몰이를 했다.

일정	4월 6일~5월 26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 오후 2시/7시, 일 오후 3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티켓	VIP석 13만 원, R석 11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B석 5만 원
문의	1544-1555



러시아 거장 손 거친 체호프 고전 '세 자매'

러시아의 거장 연출가 레프 도진이 안톤 체호프의 희곡 '세 자매'로 국내 관객을 찾는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말리 극장의 제작·출연진을 이끌고 내한해 공연한 '가우데아무스'(2001), '형제 자매들'(2006), '바나 아저씨'(2010)에 이어 4번째로 선보이는 한국 무대다.

'세 자매'는 '바나 아저씨', '갈매기', '벚꽃동산'과 함께 체호프의 4대 희곡으로 꼽힌다. 도진은 1901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스타니슬라프스키의 연출로 초연된 이 작품을 재해석해 2010년 처음 선보였다.

극은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모스크바를 떠나 러시아의 지방 소도시에 정착해 사는 세 자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버지의 죽음 후 남은 딸 '올가', '마샤', '이리나'와 집안 유일의 남자이자 아들인 '안드레이'는 고향인 모스크바로 돌아가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얽히고설킨 인간관계 속 사건들로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도진은 연출 노트에서 "체호프의 작품 중 가장 복잡하며 부조리하다"고 설명했다.

일정	4월 10~1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
티켓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2005-0114

거장 로린 마젤이 이끄는 뮌헨 필 내한 공연

지휘 거장 로린 마젤이 이끄는 뮌헨 필이 6년 만에 세 번째 내한 공연을 한다. 로린 마젤은 지난 2월에도 국내 팬들과 인사한 바 있다.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된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를 대신해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을 이끈 것.

국내 클래식 애호가들은 두 달 간격으로 이 거장이 어떻게 악단별 색깔과 에너지를 끌어내는지 지켜볼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됐다.

뮌헨 필은 독일 전통 사운드를 묵묵히 지켜온 악단으로 오늘날 유럽에서도 순수한 음악성과 철저한 통일성, 투명성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로 꼽힌다. 이들의 내한 공연 프로그램은 베토벤에 집중된다. 공연 첫날에는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과 고전주의 교과서 작품으로 통하는 베토벤 교향곡 4번, 7번을 연주한다.

둘째 날에는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 서곡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등이 연주된다. 특히 이날 공연에는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에 빛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협연할 예정이다.

일정	4월 21~22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R석 35만 원, S석 25만 원, A석 18만 원, B석 12만 원, C석 7만 원
문의	02-599-5743



봄날 클래식의 향연,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

봄바람과 함께 클래식을 전하는 '2013 교향악 축제'가 4월 1~17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1989년 예술의전당 음악당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국내 오케스트라들의 큰 잔치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향 등 악단 16곳이 참여하는 이번 교향악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차세대 예비 거장'들이 전 공연의 협연자로 나선다는 점이다.

협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7세.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한 연주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람스와 브루크너의 곡이 많이 연주된다는 것도 이번 축제의 특징이다.

브루크너 특유의 '우주적 음향'이 가득 담긴 교향곡 3번, 6번, 9번을 각각 창원시립(7일), 부산시립(12일), KBS교향악단(13일)이 연주한다.

브람스의 곡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 서울시향(3일)은 브람스 곡으로만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인천시향(10일)과 전주시향(14일)도 각각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교향곡 1번을 연주한다.

일정	4월 1~17일(5일 제외),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문의	02-580-1300

